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시 보도가능	배포	2017.6.21(수)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민우 (02-2100-2650)	담 당 자	최성규 사무관 (02-2100-2655)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 (02-2100-2850)		이창민 사무관 (02-2100-2855)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민경설 (044-215-4710)		김은지 사무관 (044-215-4716)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장준경 (02-3145-7580)		최광식 팀 장 (02-3145-7611)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김성태 (02-3774-8505)		라성채 부 장 (02-3774-8580)

제 목 :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 개최

- '17.6.21(수) 08:00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6.21(수) 08: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

1.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 '17.6.21 05:30(한국시각) MSCI는 정기 지수조정 결과를 발표
 - MSCI 신흥국지수에 중국 A주* 222개 대형주를 신규편입** 하는 것으로 결정(편입비중은 0.73%)

* 상해·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본토 설립 중국기업 주식(위안화 결제)
 ** MSCI가 '16년에 제안한 방식에 비해 A주 편입대상 및 비중이 축소
 (기준안 : 448종목, 편입비중 1.0% → '17년 발표안 : 222종목, 편입비중 0.73%)

- 금번 결정에 따른 실제 지수조정은 '18.6월부터 시행될 예정

2. 중국 A주 신규편입에 따른 영향

- 중국 A주 편입으로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물 비중은 소폭 감소($\Delta 0.23\text{p}$)*할 것으로 예상

* MSCI신흥국지수 내 한국물 비중(예상) : 기존 15.5% → 편입 후 15.27%($\Delta 0.23\text{p}$)

- 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약 6천억원 (패시브)^①~4.3조원(패시브+액티브)^② 규모의 자금유출이 가능

*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 규모 : 약 ①2,300억\$(250조원)~②1.8조\$(1천900조원)

- 다만, 실제 시행시기, 신흥국 투자펀드 규모의 증가추세,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MSCI 지수 조정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① 실제 중국 A주가 신흥국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1년 후인 '18.6월
- ② 최근 신흥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 증가 추세 지속

* 글로벌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억\$)

- 신흥국 : ('15) $\Delta 771$ → ('16) $\Delta 3$ → ('17.4~5월) +181
- 북 미 : ('15) $\Delta 1,043$ → ('16) $\Delta 229$ → ('17.4~5월) $\Delta 244$

※ '16년말부터 국제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 등으로 '17년부터 글로벌 자금이 “채권 → 주식”, “선진국 → 신흥국”으로 전환하는 추세 예상(소위 “Great Rotation”)

참고

중국 A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관련 시각

◇ 시장에서는 금번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신규편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종전 계획에 따른 유출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주요기관들은 중국 A주 5% 편입시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이 0.1~0.2%p 감소될 것으로 전망
 - * '16년도 계획안 실행시 한국 비중 감소폭은 △0.3%p
 - 금번 중국 A주 편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11~36억달러로 추정

<중국 A주 MSCI 편입시 국내 외국인 자금유출 추정>

구 분	비중변화	외국인 자금유출액
국제금융센터(3.29일)	△0.1%p	△20억달러
한국투자증권(4.26일)	△0.2%p	△36억달러
NH투자증권(5.17일)	△0.14%p	△21억달러
삼성증권(6.7일)	△0.07%p	△11억달러

- ② 실제 편입은 '18.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
- ③ A주 반영비율이 100%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과거 한국과 대만의 경우, 100% 편입까지 각각 6년, 9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 시 중국 역시 점진적으로 편입 비중을 늘릴 것으로 평가
 - * 중국이 외국인투자 및 자금흐름 제한을 없앨 경우 A주 반영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편입대상인 A주 종목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최대 30%(JP Morgan, Morgan Stanley)

③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증시에 금년 1~5월 중에만 9조원 이상 순유입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국물 비중감소에 따른 자금유출 규모(최대 4.3조원)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 ('16) 12.1조원 ('17.1~5월) 9.1조원

- 최근 1년여간 사례를 보아도 1개월 동안 3조원, 2개월 연속 6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유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주가 하락폭은 월간 △1.5%~△2.5%, 2개월간 △4% 수준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음

* [참고3] 최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참조

3. 대응 방향

□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결정에 따른 증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정부가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 특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MSCI의 요구사항*을 단기간내 충족하기 쉽지않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

* '16.6.15, 「금융시장 점검회의」 보도참고자료 참조

○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MSCI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① 외국인의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중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시행

* (파생상품) '17.6.26 시행예정, (채권) '17.6.29 시행예정 / (주식) '17.3월 기도입

② 상장·공모제도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 지속 추진

③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④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korea.kr

넵!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2

MSCI 시장분류 현황

□ (개황) MSCI는 세계 최대 지수산출기관으로 80개 이상의 국가를 선진·신흥·프론티어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지수 산출*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며 추종자금이 9조달러에 육박

< MSCI의 국가별 시장분류 현황(17.5월말) >

선진시장(23개국)			신흥시장(23개국)			프론티어시장(22개국)
MSCI World Index			MSCI Emerging Markets Index			MSCI Frontier Markets Index
미주	유럽, 중동	아태	미주	유럽, 중동	아태	세부 국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싱가폴 일본, 호주 홍콩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터키 남아공, UAE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오만 자메이카, 요르단 루마니아, 모로코 베트남, 쿠웨이트 가나, 케냐,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

□ (신흥국지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23개 국가의 총 830개 종목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 지수구성종목 시가총액은 약 4.6조달러이며, 국가별 비중은 중국(27.7%), 한국(15.5%), 대만(12.2%), 인도(8.9%), 브라질(6.9%) 順

□ (선진국지수)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23개 국가의 총 1,646개 종목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 지수구성종목 시가총액은 약 36.7조달러이며, 국가별 비중은 미국(59.2%), 일본(8.6%), 영국(6.7%), 프랑스(4.0%), 독일(3.6%) 順

< 선진국지수 내 종목별 비중(Top5) >

순위	종목	비중(%)	국가
1	애플	2.22	미국
2	Microsoft	1.41	미국
3	아마존	1.10	미국
4	페이스북	0.97	미국
5	존슨&존슨	0.95	미국

< 신흥국지수 내 종목별 비중(Top5) >

순위	종목	비중(%)	국가
1	삼성전자	4.27	한국
2	텐센트	4.24	중국
3	타이완 세미콘덕터	3.61	대만
4	알리바바	2.99	중국
5	나스퍼스 N	1.96	남아공

참고3

최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 '15.12~'16.1월 중 월평균 3조원, 2개월 연속 6조원 규모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 사례가 있었으나, 코스피는 월간 $\Delta 1.5\% \sim \Delta 2.5\%$, 2개월간 $\Delta 4\%$ 수준 하락

구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조원)	KOSPI (pt)	전월比 차 (pt)	전월比 증감률(%)
'15.10월	+0.58	2,029.47	+66.66	+3.4%
'15.11월	$\Delta 1.17$	1,991.97	$\Delta 37.50$	$\Delta 1.8\%$
'15.12월	$\Delta 3.07$	1,961.31	$\Delta 30.66$	$\Delta 1.5\%$
'16.1월	$\Delta 3.07$	1,912.06	$\Delta 49.25$	$\Delta 2.5\%$
'16.2월	$\Delta 0.19$	1,916.66	+4.60	+0.2%
'16.3월	+4.42	1,995.85	+79.19	+4.1%
'16.4월	+2.03	1,994.15	$\Delta 1.70$	$\Delta 0.1\%$
'16.5월	$\Delta 0.14$	1,983.40	$\Delta 10.75$	$\Delta 0.5\%$
'16.6월	+0.47	1,970.35	$\Delta 13.05$	$\Delta 0.7\%$
'16.7월	+4.11	2,016.19	+45.84	+2.3%
'16.8월	+1.85	2,034.65	+18.46	+0.9%
'16.9월	+1.63	2,043.63	+8.98	+0.4%
'16.10월	+0.46	2,008.19	$\Delta 35.44$	$\Delta 1.7\%$
'16.11월	$\Delta 1.19$	1,983.48	$\Delta 24.71$	$\Delta 1.2\%$
'16.12월	+1.74	2,026.46	+42.98	+2.2%
'17.1월	+1.79	2,067.57	+41.11	+2.0%
'17.2월	+0.66	2,091.64	+24.07	+1.2%
'17.3월	+3.29	2,160.23	+68.59	+3.3%
'17.4월	+1.27	2,205.44	+45.21	+2.1%
'17.5월	+2.14	2,347.38	+141.94	+6.4%